

東洋醫學 眞面目 못 보여졌다.

朴贊國

나아갈 길 提示한 現實性 있어야

《小說 東醫寶鑑》이 이미 1百萬卷이상 팔렸다고 하니 人氣가 참으로 대단하다. 自然을 征服의 對象으로 삼아 攻擊함으로써 이루어진 現代 物質文明은 결국 人間의 疏外, 道德的 腐敗, 環境의 汚染 등으로 物質的 生態界뿐만 아니라 精神的 生態界까지 破壞하여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破壞되어버린 精神生態界에서 사는 現代인들이 精神的 安息處를 찾는 것은 너무도 當然한 일이라. 얼마전 丹學에 關한 冊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나, 어떤 스님의 글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들도 바로 이러한 緣由에서였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小說 東醫寶鑑》이 고달픈 精神들에게 慰安을 주는 安息處가 되어준 것은 대단한 寄與임에 틀림없다. 다만 비록 小說이라 하나 이것이 文化發達에, 아니 나아가 우리 人生에 어떤 진정한 도움을 주려면, 반드시 그 속에 現實의 苦痛을 벗어나 새로운 世界로 나아갈 길이 提示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나아갈 길이 提示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現實性이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그 方法은 반드시 眞實性和 事實에 根據하고 있어야만 可能할 것이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漫畵 또는 武俠小說 등을 보면 그 內容의 眞實性이나 現實性은 外面한 채 오직 興味 爲主로 씌어지거나 製作되는 例가 많다. 이렇게 大衆媒體를 通하여 虛構性에 中毒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虛構的인 小說이어야 읽히는 奇異한 現狀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筆者가 《小說 東醫寶鑑》을 모두 虛構的이라고 하는 뜻은 아니다. 醫學的 側面에서 볼 때 다소 首肯이 가는 點도 없지 않으나 그 根本에 있어서는

東洋醫學의 眞面目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설사 醫學을 專攻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그 方面에 어느 정도 精通한 사람이었다면, 이 冊을 읽고 그 虛構性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단지 筆者는 醫學을 專攻하는 사람으로서 그 誤謬를 파헤쳐보기로 하겠다.

첫째, 許浚의 出身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면 許浚이 劉義泰를 만나 醫學工夫하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

醫理의 傳授場面이 빠진 아쉬움

여기에서 생기는 疑問은 劉義泰가 許浚의 스승이라면 어찌 醫學의 理論에 대한 傳授가 없는가 하는 點이다. 물론 東洋에서는 예로부터 下學而上達을 主張하여 아직 理致를 깨칠 段階에 이르지 않으면 理論을 傳授하지 않는 例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許浚이 自身을 代身하여 다른사람을 診療케 할 정도라면 마땅히 醫理의 傳授가 있어야 했을 것이며, 더욱이 죽으면서 自身의 屍體의 研究를 위하여 弟子에게 물려줄 정도라면 許浚에로의 醫理 傳授가 제대로 描寫되어 讀者들이 東洋醫學이 어떠한 哲學에서 出發하였으며, 그 理論과 思想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았을 것이다.

東洋哲學의 陰陽五行의 原理가 쉬운 것은 아니며 또한 東洋醫學의 五臟六腑와 12經絡에 대한 理解도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TV의 連續劇도 아니고, 이름을 《小說 東醫寶鑑》이라 하였으면 이미 醫書 《東醫寶鑑》의 根本理論인 陰陽五行과 臟腑經絡에 대하여는 좀 그럴싸한 傳授 過程의 描寫가 있었음직도 한 일이다. 얼마 전 TV 에 放映된 崑후라는 映畫에서 武術의 心法을 傳授하는 過程이 가끔 조금씩 放映되곤 하였다. 이러한 場面은 그 劇의 信憑性和 아울러 興味도 더욱 增進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哀惜하게도 이 小說에서는 師弟之間의 心法傳授 過程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지금에 와서 劉義泰와 許浚 사이에 어떻게 醫學이 傳授되었는지에 대한 具體的인 內容은 알 수 없으나, 現在 許浚의 著述로 남아 있는 《東醫寶鑑》을 통하여보면, 단순히 藥物의 性質이나 臨床技法 뿐만 아니라 醫學의 眞髓인 心法이 반드시 傳授되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다. 또한 그 心法은 단지 말로써도

어려운데 이 小說을 보면 劉義泰와 許浚은 對話도 거의 없다시피하고 오직 無言中에 許浚이 홀로 별다른 冊도 없이 깨어나가고 있다.

이는 자칫 東洋醫學은 별다른 冊도 없고 스승의 가르침 없이도 獨自的으로 깨칠 수 있다고 생각케 할 憂慮마저 없지 않다.

現在 韓醫學을 專攻하면서 그 醫理와 陰陽五行을 研究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納得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個人差도 있지만 陰陽의 理致를 冊에서 보고 또 스승이나 先輩의 이야기를 듣고 또 수없이 생각하여도 역시 풀리지 않은 疑問이 많고, 五行도 역시 이와 같아 平生을 두고 窮究할 對象으로 置薄하여 두고 있는 마당에 어찌 劉義泰나 許浚 같은 賢者들이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있었겠는가? 혹여 이러한 理論의 傳授는 다른 보통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後世에 아무런 傳해지는 이야기가 없어 作家의 資料收集 過程에서 漏落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덧붙여 藥物學 즉 本草의 傳授에 대해서도, 물론 이 小說에서 말한 대로 藥物의 習性·形態 등을 먼저 아는 것이 基本이며 重要的 일이다. 그러나 藥物의 藥性を 窮極的으로 決定하는 것은 氣味論인데, 이도 또한 陰陽五行에 根據한 것이다. 그런데 小說에서는 단지 氣味論이라는 것이 있다고만 言及될 뿐이다.

그러므로 讀者들은 단지 韓藥이 許浚이 약을 달이는 물이나 불의 強弱, 服藥方法의 正確性 등에 의하에서만 藥效가 나는 것처럼 錯覺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重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좋은 藥材에 正確한 處方이 構成되고 난 후에 이러한 精誠이 필요한 것이지, 단지 精誠만으로는 다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正確한 處方의 構成에는 病의 診斷 못지않게 藥에 대한 正確한 理解가 필요한데, 東洋醫學에서는 이를 바로 氣味論이라 稱하고 있다. 이는 단지 藥倉庫에서 藥을 整理한다고 習得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스승으로부터 正確한 傳授가 있었어야 했을 것이다.

許浚을 鍼醫로 잘못 描寫

둘째, 許浚의 診療장면 묘사에 있어서 그를 마치 鍼醫인 양 言及하고 있는

境遇가 많은데, 事實 當時에는 鍼醫가 따로 있었고 許浚은 엄연히 鍼醫가 아니었다. 물론 鍼醫가 아니더라도 鍼을 놓을 수 있고 더욱 技術이 뛰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李朝實錄》의 記錄을 보면 1637年 허준은 宣祖의 病에 대해 自身은 針法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鍼醫가 아님은 勿論이고 鍼에 대한 研究가 그리 깊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東醫寶鑑》에 針灸篇이 끝에 있고 또한 각 篇의 病症치료에 治療穴을 附記하고 있으나 대단치 못하다. 針灸篇이 그 주된 內容이 單純히 經絡의 흐르는 位置와 針穴의 位置·紹介에 奇經八脈·五俞穴 等 針灸에 關한 內容을 약간 덧붙이고 있다. 이는, 許浚이 針灸를 重要視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針을 藥보다 더 重視한 針醫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許浚의 臨床記錄 中 첫번째 것이 昌寧 성대감의 마님 것인데, 그 臨床內容를 살펴보면 許浚이 患者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다, 또 鍼을 놓기 전에 沐浴齋戒를 하였다. 또 藥을 달일때 井華水로 달였다, 불의 새기를 調節하였다는 등의 詳細한 內容을 記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꼭 필요한 患者의 症狀에 대한 說明과, 證의 區分에 대한 서술은 簡略하고 貧弱하기 짝이 없다.

즉 마님의 病症은 단지 右側이 摩痺되어 있다는데 不過하고, 患者의 既往歷, 平素의 生活, 性格, 病을 發生시킬 수 있었던 要因, 病의 直接的인 原因 等에 대한 說明이 전혀 없다. 나아가 現在 患者의 症狀 즉 韓醫에서 重視하는 發汗의 與否, 大小便의 狀態, 睡眠狀態, 食事狀態, 顔色, 脈狀 等에 對한 敘述이 없다.

이러한 것들을 綜合分析하여 治療를 行하는 것을 韓醫學에서는 辨證施治라 하는데, 바로 이 辨證施治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막연히 中風이고 藥을 精誠을 다하여 먹이고 또 精誠을 다하여 鍼을 놓되, 針穴의 選擇보다 鍼을 놓는 時刻이나 鍼의 깊이, 留針時間 等を 더욱 重視하여 記錄하고 있다.

辨證施治는 漢醫學의 基本

이후 許浚이 內醫가 되어 공빈의 동생 김병조의 病을 治療할 때도 거의 이와

비슷하게 記錄하고 있다. 단지 다르다면 여기서는 嘔吐와 어지러움에 心下部에 단단한 것이 있으므로 反胃 즉 胃痛이라고 診斷을 내리고 半夏瀉心湯을 쓰고 있다. 물론 여기서도 舌診이나, 脈診, 望診(色診)에 대해 言及이 없고 단지 心下를 눌러본 것에 不過하다.

또한 許浚이 김병조에게 藥을 먹이는 過程에서 보면 김병조가 藥을 먹기가 힘들어 먹지 못하겠다고 한다. 물론 藥이 먹는 飲食이나 茶처럼 입에 爽快할 리는 없다. 그러나 大體的으로 臨床 經驗에 依하면 病에 꼭 맞는 藥이라면 아무리 그 맛이 쓰고 고약하더라도 患者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常例다. 만약 當時에 정말로 김병조가 그 藥이 즉 半夏瀉心湯이 입에 억겨었다면 그 處方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小說 作家의 생각처럼 藥은 맞았는데 김병조의 性格이 못되어서 藥 먹기를 拒否하였다면, 有能한 醫師라면 달리 약을 먹을 方法을 講究하지 이렇게 자기가 傷處를 입으면서까지 藥을 強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먹기 싫은 藥을 억지로 먹는다면 그 약이 설사 病症에 適合한 藥이라 할지라도 企待한 만큼의 效果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韓醫學이 洋醫學과 다른 것은 우선 그 理論과 用具 등이 다르지만 흔히 韓醫學을 아는 사람들은 辨證施治가 그 特徵이라고 한다. 西洋醫學은 어떤 病名, 예를 들어 糖尿라 하면 그 處方이 決定되어 있다. 그러나 韓醫學은 糖尿라 할지라도 감기에 쓰는 藥을 쓸 수도 있고 補藥을 쓸 수도 있다. 즉 糖尿라 할지라도 發汗이 잘 안되고 惡寒을 느끼며 頭痛이 있고 여기에 小便이 不利하다면 感氣에 小便이 나오지 않을 때 쓰는 五苓散이라는 處方을 쓸 수 있다.

반대로 感氣에 걸렸을 때도 흔히 感氣에 쓰는 藥만 쓰는 것이 아니고, 糖尿 病처럼 口渴이 甚하고 오줌을 많이 누고 體重이 減少되면 당뇨병에 흔히 쓰는 藥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病名에 구애되지 않고 어떠한 病이라도 그 나타나는 症狀이 어떠한냐, 다시 말하면 그 病을 誘發시키고 있는 根本原因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서 藥을 쓴다는 것이다.

生理·病理·藥理의 把握이 重要

우리가 普通 생각하기에는 中風이 오면 머리에만, 즉 腦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韓醫學에서는 비록 腦에 病變이 있다 할지라도 腦만을 別個의 것으로 分離하여 보지 않고, 腦도 역시 全體의 一部로 全身 各部와 密接하게 聯關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즉 腦에 病變이 있지만 그 病變을 發生시키는 原因이 肝·心·脾·肺·腎 등의 五臟에 있을 수도 있고, 胃나 小腸, 大腸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皮膚에서 發汗이 되지 않아 올 수도 있고, 大便이 通하지 아니하여 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韓醫學의 辨證施治란 어떤 疾病을 直接 治療하기보다는 이 病을 일으키고 있는 原因을 治療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洋醫學에도 이러한 治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面에 있어서 韓醫學 만큼 發達되어 있지 못할 것이다.

《小說 東醫寶鑑》이 지나치게 醫師의 誠意나 藥物의 服用方法 등을 誇張하여 記述하고 있는 것은 바로 韓醫學의 本質을 제대로 把握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裁判을 할 때 情狀을 參酌해야 할 人情이 있지만 事件의 實情이 儼然히 存在하고 있듯이, 사람의 疾病을 治療함에 있어서도 물론 人情을 움직이는 것이 重要하고 醫師의 誠意 또한 배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人情 이전에 儼然히 醫學의 理論인 人體의 生理·病理가 있고 藥의 藥理가 存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誠意 이전에 理致에 合當한 診斷과 處方이 있어야 할 것이다. 筆者는 文學에 대하여는 잘 모르지만, 이러한 理致를 無視하고 사람의 알팍한 憾情에 呼訴하여 억지로 感動을 일으키려고 奇妙한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負擔스럽게만 느껴진다.

筆者가 듣기에 이 小說의 作家가 이 劇本을 쓰면서 當時에 韓醫界 人士를 많이 만나 諮問을 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當時에 諮問에 應했던 韓醫師들이 제대로 그 役割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물론 韓醫師라 하여 모두 韓醫學의 理論과 實際를 正確히 理解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는 諮問을 구했다 할지라도 作家가 그 內容을 短時間 內에 理解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當時의 社會 風潮가 西洋 科學을 盲信하고 아울러 西洋醫學에만 依存하고 있던 時代였기에 더욱 그러하였는지도 모르겠다.

歷史的 考證의 問題

셋째, 歷史的 考證의 問題點을 指摘해보자. 이 小說을 보면 中國에서 《本草綱目》이라는 有名한 藥物學 책이 出版되었는데, 그 著者가 高名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許浚이 中國으로 著者 李時珍을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詳細히 信하고 있다. 許浚이 李時珍을 만나러 中國에 갔다온 後 宣祖 10年(1577)에 公빈이 죽었으므로 許浚이 中國에 간 것은 이 小說에 의하면 1576년 경이 틀림없다. 물론 李時珍은 1518년에 태어나서 1593년에 죽었으므로 이때에 生存하고 있었음은 틀림없으나 그렇게 有名한 醫師는 아니었다. 더구나 이 小說에 依하면 당시에 이미 《本草綱目》이라는 책이 著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쓰고 있다. 물론 당시에 《本草綱目》이 著述되고 있었던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實際 《本草綱目》이 完成된 것은 1578년의 일이고 출판된 것은 李時珍의 死後 3年인 1596年 以後의 일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여러 가지 狀況으로 보아 中國에서 《本草綱目》이 著述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욱 重要的 것은 《東醫寶鑑》은 《本草綱目》이 出版되고 15年 後인 1610年에 完成되는데 《東醫寶鑑》에는 《本草綱目》이 引用되고 있지 않다는 것만 보아도, 이 小說에 나오는 內容이 事實과 다르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歷史에 의하면 李時珍은 有名한 臨床家나 理論家도 아니었으므로 더욱 우리나라까지 알려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許浚이 不朽의 名著를 짓기 위하여 李時珍을 만났다고 하였으나, 實際 《東醫寶鑑》의 內容을 살펴보면 먼저 漢文의 藥名을 記錄하고 다음에 藥名을 한글로 記錄하고 藥의 氣味와 藥性을 簡單하게 記錄하고 있고, 主로 《神農本草》 《醫學入門》에서 그 內容을 引用하고 있으며 別다른 特長이 없다. 《本草綱目》과 比較하여 본다면 詳細함이나 龐大함에 있어서 전혀 比較가 되지 않는다. 즉 《本草綱目》과 《東醫寶鑑》은 비슷한 點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다.

만약에 作家가 李時珍을 들먹이지 않고 당시 中國의 名醫였던 張介賓 같은 사람을 들먹였다면 오히려 수긍이 갈 수 있다. 왜냐하면 張介賓의 著書에서 그 內容이 《東醫寶鑑》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부연

하여 말한다면 《東醫寶鑑》 물론 本草篇을 따로 두고 있고 각 病症門마다 單方藥을 紹介하고 있긴 하지만 전혀 本草書라 볼 수 없으므로 許浚이 李時珍의 《本草綱目》을 본받아 著述하려 했다는 것은 전혀 허무맹랑한 말일 뿐이다.

앞에서 許浚이 針醫가 아니라는 事實을 言及하였는데, 또한 許浚은 小說에서 말하듯이 剖術(解剖學)에 關心이 많고 밝았던 人物은 아니라는 것이다.

西洋式으로 본 韓醫學

이 小說을 醫學的인 側面에서 보면 세가지 정도의 特徵이 있는데, (1)針灸를 지나치게 重視하고 있으며, (2)本草學이 마치 醫學의 全部인 양 말하고 있으며, (3)당시 韓醫學이 解剖學을 매우 重視한 듯이 敘述하고 있다. 물론 韓醫學에서 이들을 重視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傳統 韓醫學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지 않다.

筆者의 所見으로는, 바로 이것들이 西洋醫學的 思考方式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韓醫學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評價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정말로 韓醫學에서 重視되고 있는 陰陽五行이나 五臟六腑, 經絡, 辨證施治, 藥物의 氣味論 같은 것들은 作家도 잘 理解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視聽者나 讀者가 더욱 理解하기 어려웠으므로 빠버리고, 자기가 理解되는 것만을 골라 視聽者나 讀者의 口味에 맞추어 써내려간 것 같다.

어떤 事物을 앞에 있어 몇가지 目的이 있다면 그 目的에 따라 觀察 方法도 달라져야 한다. 크게 나누어 事物의 機能을 觀察하려는 目的이 있을 수 있고, 事物의 構造를 觀察하려는 目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事物의 構造를 觀察한다면 寫眞을 찍는다거나 事物을 分析하여 觀察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살아 숨쉬고 있는 生物을 觀察한다면 굳이 寫眞을 찍거나 分析을 할 必要가 있겠는가? 살아 있는 生物의 眞面目은 隨時로 變化하고 있는데 어찌 解剖를 하여 볼 수 있겠는가? 만약 解剖를 한다면 이미 그 機能이 꺾어져 버리므로 그 機能을 觀察할 수 없다.

韓醫學은 人體의 構造를 把握하여 疾病을 診斷하고 治療한다기 보다는, 人體의 機能을 理解하여 診斷하고 治療하고 있는 學問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

있는 사람을 그대로 자유롭게 놓아둘 때에 가장 잘 사람을 觀察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우리도 人體의 構造를 전혀 無視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는 人體의 機能을 먼저 把握하고 그 機能에 臟器를 配屬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醫學에서 말하는 五臟六腑가 西洋醫學의 그것과 전혀 機能이, 즉 意味가 다르고, 西洋醫學에는 있지도 않은 機能만 있고 形體가 없는 三焦라는 腑도 있으며, 더욱 널리 알려진 經絡이라는 것도 있지 아니한가?

이 小說의 끝부분에 이르면 앞머리에서처럼 사람을 억지로 感動시켜려는 상투수단은 줄어들고 대체로 平易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一般 大衆들의 興味는 半減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적지 않게 사실이 아닌 내용이 발견되고 있는데 즉 癘疫이 流行하여 의안군이 죽고 기타 많은 사람들이 死亡하고 있다. 이 小說의 作家는 당시의 病을 단순히 癘疫이라고 表現하고 무슨 病人지도 밝히지 않고 막연히 梅實과 피마자가 特效藥이라고 쓰고 있다. 만약 이 책이 《小說 東醫寶鑑》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理解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冊名은 버젓이 《小說 東醫寶鑑》이라 하고 病名도 자세히 밝히지 않고 藥은 단순히 매실과 피마자라고만 쓰고 있으니, 혹 동의보감이 단순히 이렇게 漢方藥을 적당히 쓰고 있는 책으로 오인될까 두렵다.

實際로 許浚이 1601년에 쓴 《諺解痘瘡集要》의 跋을 보면 1590년에 王子가 痘瘡에 걸려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의안군이다. 또 《小說 東醫寶鑑》에도 의안군의 가슴에 붉은 半點과 물집이 10여개 列을 지어 돌아 있다고 쓰고 있다. 허준의 《痘瘡集要》에도 心膈의 사이에 작은 點이 좁쌀처럼 돌아 있으면 틀림없이 痘瘡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로 보아 당시의 의안군의 病은 틀림없이 痘瘡病 즉 天然痘였다.

許浚의 記錄에 의하면 당시 우리나라 風俗은 痘瘡病은 治療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이 原則이었다. 그래서 의안군의 病에 許浚도 아무런 措置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1590년 겨울에 王子(아마 光海君인 듯함)가 또 痘瘡에 걸리자 宣祖가 먼저 王子를 아무런 조치도 取하지 못하고 죽게 버려둔 것을 후회하고 許浚에게 治療를 命하였다. 이에 許浚이 王子를 治療하여 나왔고, 그후 수많은 사람의 痘瘡를 治療하여 그 經驗을 모아 책을 엮었다 한다. 그

런데 그 책의 內容엔 역시 수많은 處方을 病症에 따라 쓰도록 例示하고 있다. 단순히 한두 가지의 漢方藥으로 痘瘡을 治療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韓醫學의 本質 把握이 緊要

이 小說이 一般 讀者에게 東洋醫學에 關心을 갖게 한 貢獻은 지대하나 그에 못지않게 副作用도 꽤 크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도 닭에다 닭을 놓아 닭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고 물은 적도 있었다. 醫學의 문외한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學問의 本質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히 자기의 關心을 끄는 것만 갖고 그 學問의 전체를 把握하려는 것이 屬性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現在 우리나라 교육 실정은 韓醫學을 조금도 배울 수 없는 狀況이므로 一般人的 韓醫學에 대한 無知가 너무나 當然하다. 또한 東洋醫學 즉 韓醫學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好奇心은 더욱 增幅되고, 이에 副應하여 作家도 자칫 讀者를 위한 興味 爲主의 글을 쓸 可能性이 있다. 물론 우리 韓醫界에서도 一般人에 대하여 韓醫學의 弘報를 게을리했음을 自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비록 韓醫學을 專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역시 國民學校에서 中·高等學校까지 오직 西洋科學과 英語 教育만 받아왔으니, 비록 大學에 들어와 漢文 좀 배우고 東洋哲學의 概論을 겨우 보고 韓醫學을 한다고 해보았자 韓醫學의 本質을 把握하여 알기 쉽게 一般에게 弘報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바라고 싶은 것은 앞으로 東洋哲學과 韓醫學을 어느 정도 理解하고 있는 사람이 《東醫寶鑑》같은 책을 素材로 삼아 글을 써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물론 어려운 理論이 어찌 쉽게 전달될 수 있을까마는 좀더 깊이 理解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잘못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재주도 없는 사람이 作家의 勞作을 評함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으나, 사실이 그러하므로 筆을 꺾을 수 없음을 理解해주었으면 한다.